

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 국가보훈 상징의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ays to develop national merit reward policies

정 원 섭 (수원과학대학교 비서행정과 - 주저자)

정 원 희 (경민대학교 자치행정과 - 교신저자)

Abstract

Chung Won-Sub/Chung Won-Hee

National Merit Reward Policies are aimed not only at ensuring stable lifestyle for th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but also at broadening and deepening public awareness of their sacrifices and contribution to the motherland, which should be handed down to next generation.

Thus, the National Merit Reward Policy carries on a highly symbolic function,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nation and society through cultivating public spirit and national identity, and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national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ways how to enhance public spirit and national unity through identifying realities and obstacles of them. After all, combining the efforts of all three side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we can develop the spirit of sound national merit reward. The development of this spirit will make a shortcut to the national prosperity by enhancing communal ties and raising national spirit.

주제어: 국가보훈, 상징정책, 보훈의식

Keywords: veterans policy, symbol, ritual

* 본 연구는 2011년 한국보훈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I. 서론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의 공헌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국가보훈은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스런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민족의식 고양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국가보훈처, 2002).

또한 국가보훈정책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심을 고취하는데 있다(정원섭, 2002:3).

그러나 이러한 국가보훈정책은 현재까지도 상징적 정책으로서의 기능이 많으며, 실질적 정책으로 접근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의 통합에 기여한다고는 하나 현 세대에서의 보훈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가보훈정책이 국가상징의 요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결국 고도의 상징적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실질적 정책으로 뿌리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의 공동체의식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국가안보, 사회통합 등 국가기반 구축에 있어 일반국민의 관심 부족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아가 국가 상징기능의 수행체계 확립과 함께 실질적으로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통한 국민통합 제고기능은 정부부처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주된 기능임으로 정신적·사회적 인프라로써 고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보훈 상징기능의 정책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국가보훈은 국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공동체 정신의 함양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국가의 기본적 정책으로써 국민정신과 자긍심을 무형의 사회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상징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현 국가보훈 정책의 상징적 기능 중 상징의식을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현 시대에 맞는 상징의식의 실질화를 통해 보다 나은 보훈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다.

II. 상징과 국가보훈

1. 상징과 상징정책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을 상징적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의 상징적 차원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은 인간마다, 집단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그것은 물리적-본능적 차원과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보훈교육원, 2011) 결국, 상징은 인간 세계를 특징 짓는 요소로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놓은 의미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상징적 대상물은 유동적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의 개념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 공감 등의 또는 해석을 위해 인간의 인지능력을 활용하는 개념작용의 도구로써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영옥, 1997).

또한 상징은 특정한 대상물에 부여하는 의미의 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대상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집단일 수도 있고, 국가와 같은 거대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개인적 상징(individual symbol)은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대상물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며, 집단적 상징(collective symbol)은 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제도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토대로 특정한 대상물에 의미를 투영함으로써 만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보훈교육원, 2011).

결국 이러한 상징은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며, 특히 정책에 있어서의 상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상징정책은 특정의 사건, 현상, 행위, 언어 또는 추상적 개념 등을 이용하여 정책대상집단에게 유형적·물질적·직접적 혜택 보다는 무형적·정신적·간접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높이거나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정원섭, 2002), 상징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

1) 국가보훈 상징의 의미

(1) 국가보훈의 개념과 특성¹⁾

국가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위난발생시 희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으로 보훈이란 사전적 의미로 ‘공훈에 보답함’을 뜻함. 다시 말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세운 공로와 헌신 및 희생에 대해 보답함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훈은 국가의 기능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 확립, 국민공동체환를 지·발전, 안보역량의 강화, 국가사회 발전의 추동 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토대를 구축해 공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2002)에서 공보훈정책을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 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책으로도 정의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2).

이와 같은 개념에서 살펴볼 경우 보훈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들을 가진다. 첫째,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아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국가정책적 지원에 대한 전 국민적 정책지지(정책순응)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존경심은 결국 나라사랑정신(조국에 대한 헌신성, 국가관, 애국심 등)과 국가공동체 의식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능은 첫째, 국가관 확립과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체계 확립으로 조국의 광복과 국가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애국·애족심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위국헌신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승화시켜 올바른 가치관 창조와 국민통합의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있다. 둘째, 안보체계 강화의 초석 역할로 남북대치 안보여건 하에서 현역 및 제대군인의 지원과 명예선양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 등 안보역량 제고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민족정기선양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으로 국권회복·자유수호·민주발전을 이룩한 민족의 자긍심 함양과 정체성 인식과 한민족 공동체의식 고양을 통해 통일 후 민족동질성 회복 및 단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유영욱(2007).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pp. 430-431; 유영욱(2009).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pp.88-89.

(2) 국가보훈 측면에서의 상징2): 상징의 시각에서 바라본 보훈

국가가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공자에게는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족한 자원, 형평성의 문제, 보상요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질적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징수단을 활용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일반국민들이 위국헌신정신을 사회유지의 건전한 정신적 가치로 발휘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국가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과 상징적 정책

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들은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훈정책 중 중요한 영역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위국헌신정신을 사회유지의 건전한 정신적 가치로 내면화하는 보훈문화 확산 및 민족선양 정기사업임. 그러나 보훈문화확산 및 민족정기선양과 같은 사업은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유영옥, 2007).

그러나 이러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유형적·물질적·직접적 지원의 내용이 한계가 있어 그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영옥(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자원의 부족으로 국가보훈의 일차적 목표는 순국선열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의 이유로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보상의 형평성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보상과 예우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어 불만의 계기가 촉발되었다. 셋째, 국가유공자 예우요구 계층의 폭발적 증가로 항일투쟁, 6.25 전쟁, 월남전 참전, 민주화 투쟁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무수히 많은 국난을 겪은 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선열들이 매우 많고 다양. 따라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 예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정책과 상징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보훈정책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 정책의 수행에 있어 단지 보훈대상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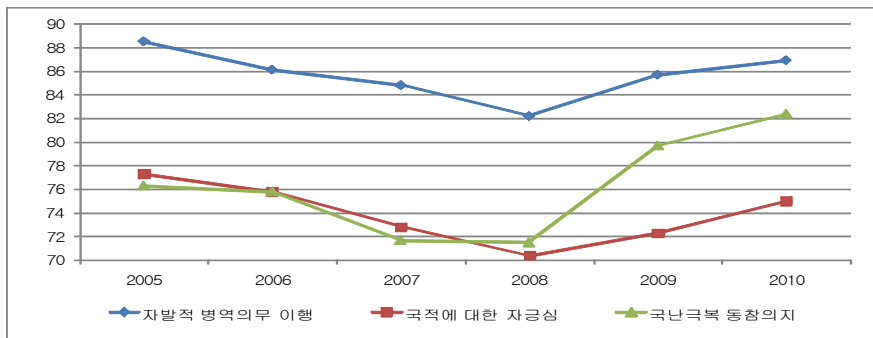
2) 유영옥(2007).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pp.437-438.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보훈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가장 가까운 정책으로 상징의식과 관련된 행사를 보다 일반 국민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Ⅲ. 상징의식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 현황 및 문제

1. 국가보훈 상징기능의 현황 및 실태분석

보훈처(2010)의 국가보훈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나라사랑정신 등 국가의식과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 등 국가수호에 대한 책무감이 부족하고 국난극복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화되는 등 국가의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추세에서 최근 상승하고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지 않아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 : 국가보훈처. 「국민보훈의식조사(2005~2010)」.

<그림 1> 국가에 대한 국민의식

또한 천안함 사태 등 국가안보의식이 저조하게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나 국가안보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의식수준은 국가안보에 대한 정신전력의 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조국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참전 등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위협,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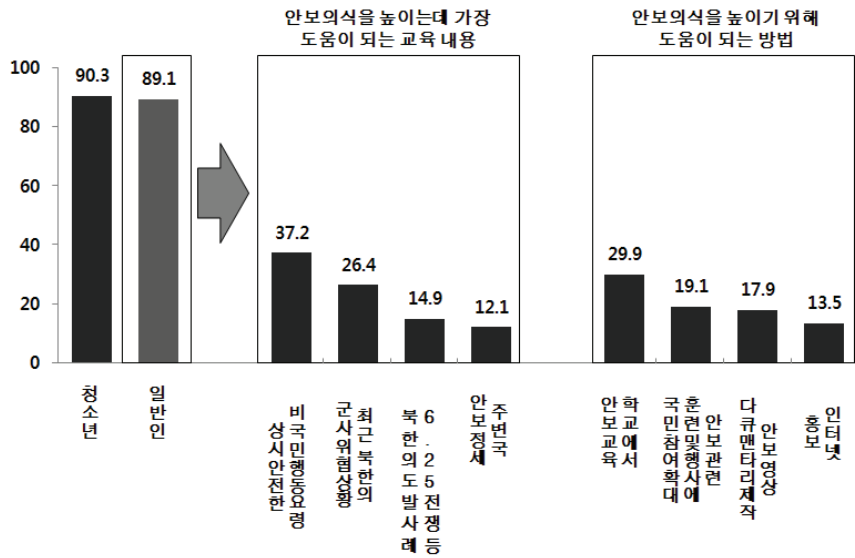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던 보훈지수 및 보훈인지도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일반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인식도

구분	합계	매우높다	조금 높다	보통이다	조금 낮다	매우 낮다
구성비	100%	5.1	19.4	51.0	19.7	4.7

자료 : 보훈교육연구원(2011). 「국가보훈 상징기능 국민의식조사」.

따라서 국가안보역량 확보 차원의 국민보훈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보의식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훈선양 프로그램의 확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 사회지도층의 참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확대 등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며, 국력의 향상과 더불어 국제사회 안보에 기여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사회적 확산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자료 : 목진휴(2011).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 p. 13.

<그림 2> 안보의식 향상교육에 대한 인식

2. 보훈상징 행사 및 사업실태

1) 각종 기념행사

기념행사는 기억과 추모, 감사 등을 통해 정신의 계승 및 사회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상징의식의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보훈관련 상징기념행사는 당초 광복절, 3·1절, 현충일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상징정책의 강화단계를 전후하여 다양한 행사가 확대 전개되고 있다.

<표 2> 주요기념행사 실태(중앙단위)

공 통	독립관련	국토수호관련	민주화관련
- 현충일추념식	- 3·1절 - 광복절 - 순국선열의 날 - 임정수립기념일	- 6·25 사변의 날	- 3·15 기념식 - 4·19 혁명기념식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자료 : 보훈교육연구원(2011). 「애국심 함양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p.121.

<표 3> 주요기념일별 계기행사(지방단위)

(단위 : 건)

계	3·1절	광복절	임정,순국선열의날	6·25사변	4·19 및 5·18
547	115	56	25	281	70

자료 : 보훈교육연구원(2011). 「애국심 함양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p.122.

2) 상징사업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와 추진체계의 혼잡성

상징사업은 초기에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출발하여 민족정기선양,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등 보훈문화조성 정책의 강화를 계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었다.

<표 4> 보훈상징프로그램 현황

분야별	세부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 보훈상징마크달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보훈문화상 제정시행, 학회결성 운영, 학술회의 개최,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 연계
보훈대상자 중심프로그램	▪ 독립유공자 공훈록 편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보훈신문 발간, 국외선열 유해봉환, 국내외 사료수집, 증언자료 수집, 각종 기념사업단체 육성
대국민프로그램	▪ 보훈캠프운영, 보훈문화교실, 교직원·사회지도층 교육, 해외사적지 순례, 전적지 탐방 및 순례, 교육자료제공, 시설물건립, 전시관·기념관 개설, 지역현충시설편람 보급,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업·행사·자료제공, 나라사랑시범학교 운영,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제, 장학퀴즈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의 현황은 각 부처별로 소관기관, 단체 및 업무에 따라 각각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별로 별도의 계획, 예산, 이념 그리고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체계의 효율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5> 각 부처별 공훈선양사업

주관부처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처	- 독립운동·국가수호·민주화 등과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
국방부	- 전쟁기념관 운영, 전사편찬, 국립묘지(서울현충원) 관리 등
행정안전부	- 국가상징의 관리, 국경일·법정기념일 관리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을 통한 민족정기선양,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민족사 관련 학술연구
문화관광부	- 호국문화시설 관리, 문화재 업무 총괄 및 박물관 관리, 계기별 문화행사 주관

자료 : 손희두 외(2000). 「보훈법령체계 개편에 대한 법제 기술적 검토」. p. 51 재구성.

이러한 보훈기념행사 즉 상징의식의 경우 독립, 호국, 민주관련 사안별로 중앙과 지방이 연계되어 다양하게 실시되고 특히, 기념·기억해야 할 중요 역사인 사건에 대한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사의 관 주도 중심, 관련단체 위주로 추진되어 일반국민의 참여 및 관심이 저조한 실정에 있고 새로운 행사 프로그램의 미흡, 의례적 행사 등은 국민적공감대 확산

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보훈관련단체의 활동이 미흡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들의 보훈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민간단체의 양적 증가와 함께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로 더 다양한 보훈단체들이 형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3·1절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 등 국경일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고 있으며, 법정기념일 기념식은 주무부처 장관인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고 있어 그에 따른 혼선이 있으며, 각종선양프로그램의 경우 양적으로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청소년의 관심이 높은 현지 체험 등의 사업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상징의식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훈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내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훈선양프로그램은 다변성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대중적 접근방안, 문화행사와 연계, 새로운 세대 계열에 맞는 사업의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상징의식을 통한 국가보훈정책 활성화 방안

1. 국가보훈 상징의식(행사) 연계방안

1) 보훈의식 활성화를 위한 보훈행사 내실화³⁾

19~20세기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들이 헌신한 시기였으며,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민족과 국가가 확고히 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현재의 지역적 갈등이 국가분열의 위기로 치닫지 못하게 하고 남북간 영구분단 및 이국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훈이념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위주의 보훈행정을 넘어서 이들에 대한 정신적 예우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행정을 바탕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힘쓰고, 건국 및 호국의 정신이념 위에 민주화와 통일의 정신을 담으며, 보훈활동을 국내활동은 물론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국외의 민족동포를 대상으로 한 민족정체성 확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호응이 없는 기념사업은 지속되기 어렵

3) 한국행정연구원(2002). 「국가보훈기능강화 및 조직발전방안연구」. p.121-123

다. 따라서 기념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념사업을 다양화하고 일반국민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서 민간단체 위주의 기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념사업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국전쟁 및 그 이후 여러 경우를 통해 희생당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확대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별 사업의 정규화로 국가보훈처 주도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 적극적인 보훈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경우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이해와 정신함양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⁴⁾, 또한 보훈을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의 공간, 현장으로 연계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보훈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을 발굴하여 보훈의 가치로 상징화가 필요할 것이다.

2. 보훈문화 확산 및 행사 활성화 방안

상징성을 지닌 보훈행사는 국민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 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정치적 언어, 의례와 의식, 정치적 신화 및 이데올로기,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징적 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며 거의 모든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⁵⁾ 보훈관련 기념행사들은 독자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복적으로 활용하여 그 상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징적 보훈행사는 특정시기(호국보훈의 달)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에 일반국민은 물론 정책대상집단인 참전·제대군인의 참여와 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이며, 상징정책을 통한 국민통합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제도 및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⁶⁾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상징수단으로는 의례와 의식,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상징적 사건 또는 제도 등인 바, 이러한 상징 수단들은 독자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복적으로 활용하여 그 상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상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창조적인 자세로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행정대상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상징수단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한국행정연구원(2002). 「국가보훈기능강화 및 조직발전방안연구」. pp.126-127.

5) 유영옥(2009).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p.468.

6) 정원섭(2002).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 방안」. pp.12-13.

1) 보훈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그러나 현재 보훈 관련 시설은 학교의 단체 관련 등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훈행사의 경우 관련자 이외에는 사실상 참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훈행사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보훈 체험학습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교육과정 개편이후 교과부는 전체 교과과정 중 체험학습의 비중을 30%로 올리고 있다.⁷⁾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훈행사 및 시설도 학생들의 체험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체험학습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부모직업 체험학습으로 딸을 직장에 데리고 가는 체험학습(Groundhog Jobshadow Day)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Real Game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국내에도 도입하여 보훈관련 직업체험학습과 보훈관련업무종사자(군인, 보훈처 공무원 등)들의 자녀 그리고 친구들을 직장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훈의식 확산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및 경기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체험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보훈처와 교과부 또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보훈관련체험 학습을 필수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단위 체험학습이나 소규모 체험학습의 비중을 늘려 보훈의식의 강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체험학습을 대규모로 이루어져 일정부분의 효과만 있어 작고 실용적인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필요하다. 또한 안보관광을 통한 체험학습의 확대 등 개별단위 그리고 그룹단위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안보시설은 독립기념관,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나 전적지, 미군부대, 영웅들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지역 등의 연계를 통해 안보관광을 확대하고, 특히 안보관광은 우선 가까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변지역부터 활용⁸⁾하여 다양한 지역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며, 교육부·문광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루트 개발 등 단지 보고 오는 관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보훈과 관련된 기존의 전적지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이러한 체험학습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전적지 등에 대한 가이드도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훈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교과부는 2009년 교육과정개편을 통해 초·중·고 학생 모두 창의·인성체험학습의 비중을 높이도록 과정을 개정하였음. 특히 체험학습의 비중을 늘려 다양한 활동 및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

8) 안보관광의 경우 특정한 관광목적이 있으므로 특정한 목적이 없을 경우 먼 지역까지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체험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전적지 등의 사건을 현실화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과거의 사건, 인물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상징화하고, 문학, 시, 소설의 내용에서 보훈을 상징화 할 수 있는 내용 발굴하고 또한 스토리텔링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과거의 영웅 또는 사건 그리고 현재의 영웅 또는 사건 등으로 구성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 사례 1) 故 한주호 준위 영전에 바치는 장의위원장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조사⁹⁾

대한민국 UDT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 故 한주호 준위!
 오늘 그가 조국의 깊고 푸른 바다를 가슴에 품고 우리 곁을 떠나려 합니다. 이 영전에 삼가 조사를 올리려 하니 애통함에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의 숭고한 삶을 바치는 오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울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영령이시여! 정녕 이렇게 잠드시렵니까? 후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도 간절했기에 그 칠혹같이 검고 깊은 서해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까?
 차디찬 물속을 가르며 실종된 전우들의 실낱같은 숨결을 찾으려 당신은 그토록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까? 진정 당신은 참된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한평생 오직 군인을 천직으로만 알고 살아온 '한주호'.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하고 충성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특전용사였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군인은 지시하면 어디든 간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경험 많은 내가 가야지"라며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일수록 우리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역만리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제압할 때도 당신은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떠나시던 마지막 그 날도, 자신은 돌보지도 않고 잠수하는 후배들을 하나 하나 챙기시던 당신, 그토록 강한 용기와 신념을 불태우던 당신이 오늘은 왜 이렇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누워만 계십니까? 영령이시여, 보이십니까? 20년 동안 당신의 가슴으로 길러낸 자식 같은 후배들의 늠름한 모습이?

영령이시여, 들리십니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실종된 전우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지금도 차디차고 칠혹 같은 서해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들고 있는 저 후배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인의 숙명이며, 당신이 걸어온 참 군인의 길입니다. 마지막 생의 한 줌까지 기꺼이 조국에 바친 바다의 영령이시여! 당신의 육체는 바다에 뿌려졌지만 당신이 남긴 고결한 희생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그 뜻은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자자손손 누릴 안녕과 번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영령이시여! "바쁘니 내일 전화할게"라던 그 짧은 한 마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찌 당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우리는 또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이 슬픔이 진정 영원불멸의 영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살아있는 영웅, UDT의 전설, 故 한주호 영령이시여!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조국, 한결 같이 사랑했던 푸른 바다를 지키는 일은 이제 남은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드소서.

9)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konas)기사(2010.4.10.); 안성호 외(2010). 「청소년 안보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콘텐츠 개발」. 행정안전부. p.98 재인용.

2) 국립묘지 및 시설의 활용의 다양화

미국의 경우 국립묘지의 활용이 매우 잘 되어 있음. 물론 우리나라도 공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은 국립묘지가 누구나 늘 즐기고 휴식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화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립묘지 뿐만 아니라 시설에도 활용가능하다.

주변의 경관을 활용한 둘레길의 조성,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등 다양한 주변환경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누구나 즐기고 보훈을 이해하는 곳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현충시설은 다양한 문화적인 공간으로서도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단지 보는 시설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또는 월별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현충시설이 국민과 가깝게 느껴지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클라우드 기반 보훈 프로그램 활용 및 게임 개발

보훈관련 게임 개발(patriot game) 등 다양한 이용거리와 불거리가 홍보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용게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한자마루(한자게임), 에코프렌즈(환경게임), Cool Math Games(수학게임) 등 그 종류, 다양함. 따라서 보훈, 보훈용사가 되는 게임 등 다양한 게임컨텐츠 등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보훈교육에 있어 이러한 방법의 활용은 결국 보훈의식의 확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림 3> 게임용 교육프로그램



현재 보훈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꾸러기 광장, 나라사랑 광장 등이 잘 구비되어 있으나 활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스마트폰의 이용이 많아진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홍보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공공기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요 개발현황	
<p>[1. 법제처: 법령정보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법정정보센터의 수록정보를 아이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등 총 25만여 건에 달하는 국가 법정정보를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음 -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
<p>[2. 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GDP, 산업활동, 고용, 재정 등 6개 분야 주요 경제지표를 제공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정보가 Update됨 - 주로 표와 그래프 형태로 지표를 제공
<p>[3. 미 백악관: The White Hou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정부가 1월 20일 내놓은 미 백악관의 공식 애플리케이션 - 뉴스, 사진, 동영상 등 백악관 관련 정보와 백악관 공식 블로그의 포스트를 보여줌 - 백악관의 공식행사와 대통령의 브리핑 등 관련 소식을 이메일에 바로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p>[4. 미 육군: US Arm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육군이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뉴스, 사진, 비디오 등 국방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게임, 무기 정보, 육군 제복 사진, 군가 듣기 등 밀리터리 마니아나 군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 - 육군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4) 보훈행사의 대중화

보훈행사의 경우 기념일에 TV에 방영되는 것 이외에 사실상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특히 TV의 경우 대부분은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보훈행사는 아주 무겁고 경건하여 문화행사로 발전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의 무거운 행사를 벗지 못하면 문화행사로 활성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보훈과 대중문화를 연계하여 가요, 드라마, 영속 등 대중문화 속에서 보훈의 가치 실현, 기념행사시 특정 문학에 담겨있는 내용을 의인화, 보훈의 가치로 승화, 기념행사시 문학, 시, 소설, 드라마, 가요 등을 선정하여 포상, 문화·이벤트 사례 프로그램과 연계 등으로 보훈과 TV 그리고 행사 등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훈이 문화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사는 전국에서 모두 시행되어야 한다.

5) 보훈행사의 축제화

전국적으로 기념식 날 특정한 장소에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축제화)하며, 또한 보훈관련 행사의 경우 주로 6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보훈관련 시기는 각 월에 다양하게 존재함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기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훈이 대중적인 행사가 되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에 몰려있는 행사를 보다 다양한 시기에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각 보훈 관련 시기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주기별 행사를 시행한다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훈대상자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민원제기시 정부가 ‘시혜의 입장’이 아닌 ‘존경과 예우의 입장’이라는 친절 봉사, 보훈단체 기념식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 등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라도 보훈행정대상자가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는 무형적인 만족감에도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교별로 동네별로 국가유공자 명단을 배열하거나 국가유공자 증서 등을 수여하여 상징적인 부분을 극대화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을 이용한 기억의 꽃 방류, 2010년 시행된 참전국 군악대 페스티벌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 매년 이루어지는 한강 불꽃축제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한강 꽃 방류 등을 이러한 축제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보훈행사 및 시설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년 2-3회 보훈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전국의 보훈관련 투어를 시행하여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서울시티투어버스 등과 연계하여 서울 및 경기도 보

훈시절을 관광지화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훈 투어도 일반적인 관광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련 기념일 등에 활용할 경우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안보학습관을 통한 안보의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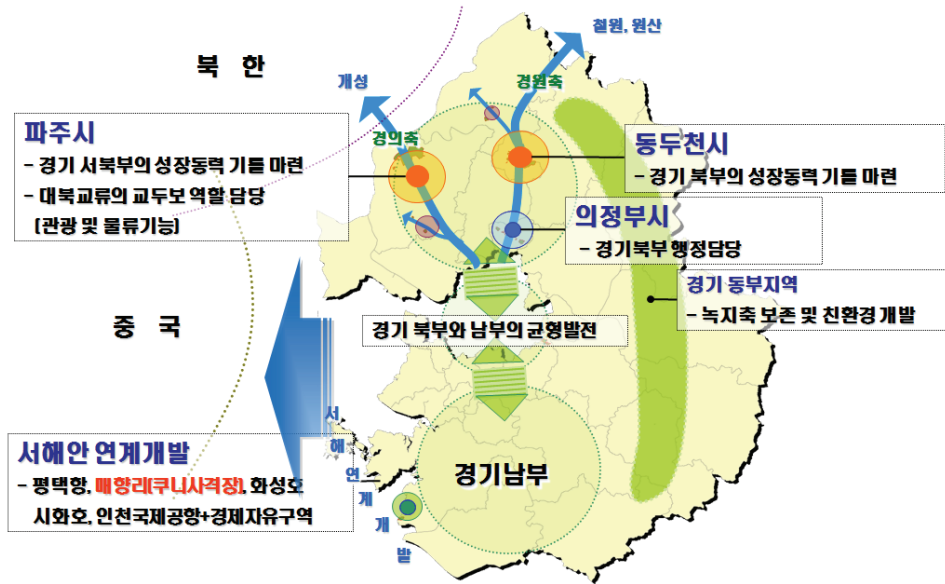
지구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의 가치로 방향설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보훈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설정하고,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나라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국가적으로 안보의식의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보훈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으며, 수업에 있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 이승복과 유관순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실제 보훈교육연구원(2011)의 설문조사의 결과도 전체 응답자의 82.3%가 독립운동, 국가수호, 민주발전 등 보훈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국가나 관련 행정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훈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관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보의식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관의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강연을 실시할 수 있다. 부모의 안보의식 강화를 자녀에게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다.

보훈을 살아있는 기념일로 연계하여 상징을 극대화하여, 유형의 보이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무형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훈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재 국민,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문학작품(시, 소설 등등)에서 가치 발굴하여 공동체의 선한 가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군기지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유치 및 지역시설개발 등을 통한 활용에만 매달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미군기지 활용계획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군기지를 헐고 그 부지를 대학유치와 클러스터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림 4> 미군기지 개발계획(경기도)

그러나 사실상 미군기지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로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군기지를 안보박물관, 안보사료도서관 등으로 기존 시설을 유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을 미군 기지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식당 및 숙소를 이용하고, 미군 훈련시설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교육 실시가 가능하며, 학교에서 단체로 시행하는 체험학습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영체험 및 해병대체험 캠프를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과 직장인 들은 최근 육체적·정신적 한계 극복을 위해 무박 당일부터 4박 5일까지 다양한 코스로 마련된 병영체험이나 해병대체험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군기지의 경우 이미 숙소와 식당, 훈련소 등의 기본 시설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일반 병영체험과는 차별성을 두어 일반인들에게 미군 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안보 및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기존시설을 소위 휴양시설과 안보시설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좋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곳으로 변모 가능할 것이다.

7) 보훈참여 강화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훈관련 행사 및 시설은 그 특성상 매우 무거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훈의식의 확산을 위해서도 보다 발랄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아이돌

에게 홍보를 어른들에게는 무게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참여유도가 중요하며, 결국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보훈처의 홍보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콘텐츠가 많아도 재미가 없으면 소용없으며, 작가 등을 활용하여 흥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참전관련 외국시설물과 독립운동 관련시설물들의 활용 및 관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으로 인해 외국의 곳곳에 참전 군인들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시설물도 존재하며,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에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등 다양한 인물과 그에 따른 시설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지만 이러한 타 국가의 시설물들을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해 인식하고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참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참전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정비를 통해 보다 다양한 보훈 콘텐츠를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8) 명칭 변경 및 다차원적(학계, 문화계 등) 연계를 통한 보훈행사 활성화

보훈명칭의 변경 고려가 필요함. 현재 보훈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훈의식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훈이라는 명칭 자체가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며, 보훈이라는 명칭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훈의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모대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고, 명칭개선을 통해 새로운 보훈 이미지를 정립한다면 기존의 정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도 효과성 제고가 가능하다.

브랜드가치가 중요한 상황에 보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명칭변경하며, 또한 관련된 명칭(애국애족, 위국헌신, 구국수호 등)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들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명칭의 변경 뿐 아니라 다양한 CI 등의 개발도 중요할 것이다. 즉, 보훈의 다양한 명칭에 대한 color 부여, 보훈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 등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보훈의 이미지를 확실히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상징물 중 보훈 상징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매칭으로 보훈이 어느 곳이나 인식될 수 있고,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9) 보훈단체 및 민간참여 활성화

현재 보훈관련단체들의 경우 일정한 행사에 있어서만 그 기능을 수행할 뿐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하다¹⁰⁾. 이는 결국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의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며, 보훈의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위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보훈의식강화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보훈관련단체일 것이다.

따라서 보훈관련단체의 동원능력을 활용하여 자체적 행사주체와 지역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보훈청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의 특성에 따른 보훈관련 행사를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훈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NGO단체 및 보훈관련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하다. 다양한 지역의 축제에서 민간을 통해 보훈행사가 하나의 축제 분야로 특화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 행사로 발전가능성 있다. 즉, 서울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에 하나의 축제 분야로 보훈을 연계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민간이나 보훈관련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상징이 확대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료의 발굴과 학술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술행사 및 전시회, 영화제 등은 보훈행사 이후 이루어져 보훈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민간 및 보훈관련단체가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다차원적 고려도 중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훈은 실질적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리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으로 심리적 충족을 위한 상징적 정책들의 시행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국가보훈정책은 공헌·희생의 보답과 예우를 통하여 국가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여 국가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보훈정책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훈정책은 실질적 보상의 물질적 지원에 그쳤다면 향후 그 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

10) 한국행정연구원(2002). 「국가보훈기능강화 및 조직발전방안연구」. pp.124-123.

를 창출하는데 더욱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통한 국민통합 제고기능은 정부부처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주된 기능임으로 정신적·사회적 인프라로써 고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보훈 상징기능의 정책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보훈의식을 활성화 하고 상징의식을 실질화 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인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보훈의식의 성장과 상징의식의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경근. (2009). 「국가의 조직 체계 관련 법령의 정비 연구」.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가보훈처. (2002). 「국가와 보훈」.
- _____. (2008). 「국립묘지 애국테마파크화 추진계획 검토」.
- _____. (2010).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 결과 보고서」.
- _____. (2010). 「국민보훈의식조사(2005~2010)」.
- 국무총리실 호국보훈정책기획단. (2003).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 금창호. (2009).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보훈조직 발전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김기호. (2009).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 사전기획 연구」.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김소남. (2009). 「대한민국 국가상징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 김학민. (2006). 「국가의전의 문화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 김현선. (2001). 「국가의례와 정치적 상징」. 한국학술진흥재단.
- 류숙희. (2000). 「상징 체계 이론 (Ryue, Sookhee)」. 성신여자대학교
-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1). 「국가보훈처 새로운 이념정립과 비전수립에 대한 연구」.
- 목진휴. (2011).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
- _____. (2011).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나라사랑 교육지원법 제정 공청회: 13.
- 보훈교육연구원. (2008).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묘지 현충선양프로그램 개발 연구」.
- _____. (2010).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 _____. (2011). 「애국심 함양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 _____. (2011). 「국가보훈 상징기능 국민의식조사」.
- _____. (2011). 「애국심 함양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 승구. (2007). 「국립묘지 의전 중심의 국가 전통의전 현대화 연구」. 한국문화전략연구소.
- 손희두 외. (2000). 「보훈법령체계 개편에 대한 법제 기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 안성호 외. (2010). 「청소년 안보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콘텐츠 개발」. 행정안전부.
- 안태욱. (2009). 「국립대전현충원 의전체계 연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유영욱. (1997). 「상징과 기호의 정치경제학」. 서울.
- _____. (2005). 남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한국보훈논총」, 4(1): 11-62.
- _____. (2005). 「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재.
- _____. (2007).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서울: 홍익재.
- _____. (2009).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 장지호. (2010). 「한국의 국가이미지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 전신욱. (2008).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용방안. 「한국보훈논총」, 7(2).
- 정갑영. (2005). 「한국문화상징 홍보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길호. (2001). 「국립묘지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정원섭. (2002).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 방안」.
- _____. (2002).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 방안」. 한국정책학회 발표자료. : 12-13.
- _____. (2003). 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에 관한 연구: 국민 통합기능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1): 93-110.
- 정현규. (2003). 「이제 통일 한국의 상징을 준비 할 때다」. 서울 : 삶과꿈.
- 충북개발연구원. (2009). 「충북상징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 하상복. (2009). 「국가, 죽음, 상징-국립묘지 비교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행정연구원. (2002). 「국가보훈기능강화 및 조직발전방안연구」.
- _____. (2009).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조직 이미지에 관한 연구」.
- 행정안전부. (2009). 「정부의전편람」.

접수일 (2011년 10월 13일)
수정일자 (2011년 10월 27일)
게제확정일(2011년 11월 8일)